

## 제주와 일본 학술문화교류를 위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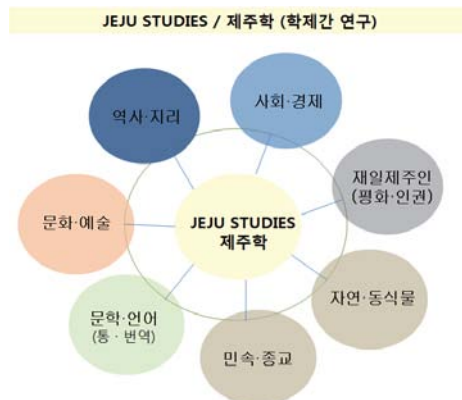
- 교차하는 시점을 연결하는 ‘지(知)’의 대화적 생산 -
- 식민지기, 일본인들에 의한 ‘제주도’ 공간표상 -

고 영 자(제주대학 탐라문화연구소)

### 머리글-21세기 제주학의 연구대상 및 방법론

글로벌적 차원에서 학문과 지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21세기,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들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국가 간 또는 학술문화공동체 간 미래 학술문화 교류의 기반을 재구축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흐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주학회’는 이번 학술대학의 주제를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정하고, 이 맥락에서 발제자는 ‘제주-일본 간 학술문화 교류를 위한 전망’의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실, 양국 간 ‘학술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제주 측에서나 일본 측에서 이러한 주제를 걸고 회합한 자리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활발하게 행해져왔다. 그 결과 ‘제주도’를 중심 테마로 하여, 일본인, 제주인 양국의 학자들은 단독 또는 공저 등을 발행하여 나름 제주학 연구에 큰 기틀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작금의 제주학은 기존의 소위 정상과학, 이를테면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문학, 언어학, 민속학, 종교학 등등에서 취하는 연구대상과 학문 방법론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제주도’를 연구해 온 결실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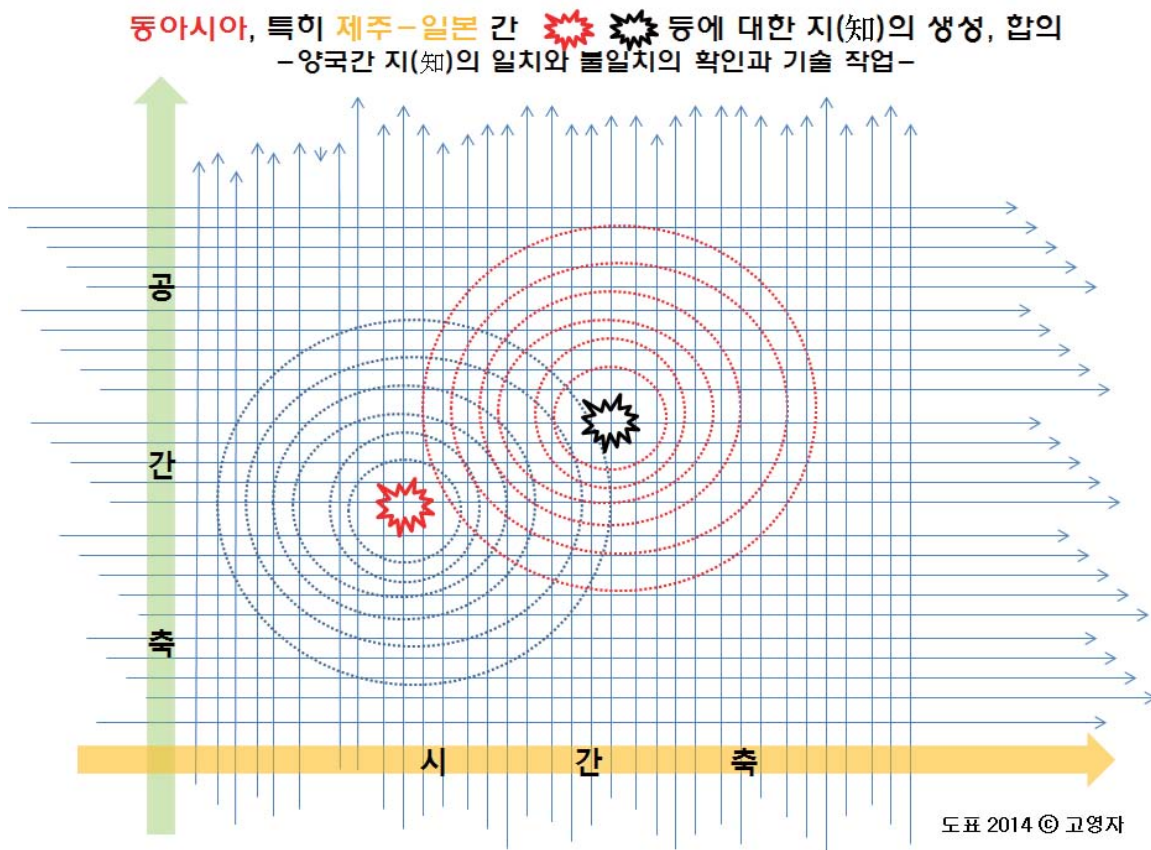


위 도표에 기대어 말하면, 제주학이 표방하는 ‘학제간의 연구’가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물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를 둘러싼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양국간의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일본 간의 ‘학술문화교류’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방적이거나 각 학문공동체 별 자기만족적 결론(해석)에 머무르는 경향이 여전히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제주도’를 둘러싼 양국간 현실·역사인식의 차이가 무엇보다도 크다는 점. 둘째로는 공통된 현실·역사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같은 연구 대상에 대한 문제의식(필요성)에서부터 시공간 설정, 수집·참고자료가 다르다는 점.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에 ‘제주도’를 둘러싼 심층적인 지식이 점차, 생성·축적되고 있지만, 이들 지식의 유통·공유의 경로가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발표자는 따라서 동아시아, 특히 제주-일본 간 ‘제주도’를 둘러싼 공통의 지(知)의 생성과 공유의 지평을 다음과 같이 시각화해 보았다.



근대학문의 정초를 다진 I. 칸트에 따르면(《순수이성비판》), “우리 인간은 모든 인식대상을 경험(지각)하는 첫 단계인 감성(직관) 단계에서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형적 직관형식에 개입시킨다.”고 설파한 대목은 21세기 제주학 연구에 있어서도 유효해 보인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인간의 모든 대상에 대한 탐구와 인식의 출발점에는 무엇보다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직관형식이 공통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엔 그 어떤 지역, 국가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시대에 있어서 결코 새

로운 주장이라 할 수 없지만, 자연환경, 역사, 인종, 종교, 가치관 등등이 다른 다문화 민족간의 학술적 교류가 21세기 화두로 떠오르는 이 시점에선 ‘시간과 공간’이라는 고전적 철학개념이 재삼 유용하게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들 선형적 직관형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이를테면 ‘어느 시기, 특정 공간에 제주인 또는 일본인 나아가 중국인 등등이 개입한 경험, 기억, 해석, 나아가 기록 등등을 병렬적으로 구성하면서, ‘그 때, 그 곳’의 다양한 타입의 과거를 서로 교환하고, 재이용 가능한 것으로 리사이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를테면 이는 제주도의 ‘그 때, 그 곳’에 대한 지(知)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작업임과 동시에 그 역사에 입체감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인접 지역인 ‘도쿄’, ‘오사카’, ‘쓰시마’, ‘나가사키’, ‘오키나와’ 등등의 학술문화공동체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협력과 교류를 전제한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권의 각 공동체는 자신의 영토 또는 이웃 나라 영토의 ‘그 때, 그 곳’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인접 지역 21세기 학술문화공동체의 교류가 ‘그 때, 그 곳’에 대한 지(知)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확인하는 작업에 만족하여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공동체간의 실천적 교류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그 때, 그 곳’에 대한 공통의 지(知)를 입체화하며 생성·갱신·공유하는 순화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고 본다. 발표자가 본 발표문의 부제로 딴 “교차하는 시점을 연결하는 ‘지(知)’의 대화적 생산”<sup>1)</sup>이란 표현은 민족 또는 국가 경계를 넘은 학문교류의 실천적 자세를 염두에 두면서 내세운 것이다.

###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한 ‘제주도’ 공간표상<sup>2)</sup>

(제주도 거주 일본인 모임 ‘제주도회’의 몇몇 생존 멤버들과 개별적 구술과 한국·조선연구자들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위에 언급한 발표자의 제주학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에 기반을 두면서, 발표자는 최근 4~5년간 <식민지기, 일본인들에 의한 ‘제주도’ 공간표상> 연구에 집중해 왔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성과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편) 「일제시대 제주도 사진자료집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 보고서」 (책임연구원, 2012.12.25.)
- 제주전통문화연구소·한림읍·한라일보 공동주최: 1933년 한림읍 옹포리를 담은 영

1) 이 표현은 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조선 연구 학술단체인 “韓国・朝鮮文化研究会” 기관지 《韓国朝鮮の文化と社会》第5号(2006年10月15日発行)에 게재된 山内文登(야마우치 후미다카)의 논문 “相異なる〈フィールド〉を繋ぐ知の対話的生産に向けて: 日韓の植民地期歴史研究をめぐる「交流」への体験的試論(서로 다른 <필드>를 연결하는 지의 대화적 생산을 향하여: 일한 식민지기 역사연구를 둘러싼 「交流」의 체험적 시론)”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 따온 것임을 밝힌다.

2) 발제자의 ‘제주도’ 연구는 ‘이미지 생성의 역사’ 틀에서 주로 ‘시각자료(비주얼 머티리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상물 상영회/오포리 다케나카 통조림 공장을 중심으로 (기획총괄, 2013.3.2., 한림읍 주민자치센터)
- 한라일보 연재: 「고영자의 제주미학산책」 (전10회. 2013.4.22.~8.28.)
  - 제주문화예술재단 인문학 강좌: 「사진과 엽서로 보는 ‘근대’ 제주: 기록사진 편 / 제주관광의 서막, 사진엽서 편」 (전2회. 2013.6.7./6.13.)
  - 한국·조선문화연구회 주최: 「제주도, 전통과 근대화의 행방」 (발표어:일본어, 2013.10.19., 도쿄 게이오의숙대학)
  - 국제고려학회 주최: 「내·외부의 시선에 비친 제주도 100년(1890s~)」 (발표어:일본어, 2013.12.15., 오사카교육대학)

위의 연구와 그에 따른 제주도 자료(사진, 엽서, 서적, 영상 등) 발굴 및 인터뷰를 위하여 발표자는 약 3년간 도쿄를 비롯하여 가마쿠라, 사이타마, 오사카, 교토, 오카야마, 규슈(후쿠오카市, 기타규슈市, 무나가타(宗像)市) 등을 방문하였고, 적지 않은 제주도 관련 시각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들 시각자료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제주도 거주 일본인들 및 관련 자료 소장자(개별) 및 일제강점기 제주도 근무, 시찰, 조사, 탐방 등의 목적으로 제주 땅을 밟은 주요 일본인(행정관료, 연구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제강점기 제주도 거주 일본인들 및 관련 자료 소장자(개별)

기증 또는 제공자명	거주지 또는 소속	특이사항
가와하라 노리후미 (河原典史)	교토 임명관대학 (立命館大学) 교수.	일제강점기 한림면 오포리 다케나가 신타로 통조림공장(竹中新太郎街詰工場) 사진 및 영상 자료 소장.
노무라 신이치 (野村伸一)	동경 게이오의숙대학 (慶応義塾大学) 교수	1930년대 제주도 조사를 행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사진 자료
다카하시 도오루 (高橋 徹)	후쿠오카현 찌꾸시노시 사쿠라다이 (福岡県筑紫野市桜台)	일제강점기 제주농업학교 교감인 부친 다카하시 겐지로(高橋憲次郎)의 차남. 당시 제주농업학교 주변 사진 다수.
다케노 신이치 (竹野新一)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고지마 (岡山県 倉敷市 児島)	일제강점기 제주성내에서 부친은 자동차 수리회사에서 근무하다 이후, 야채가게 운영. 3대가 제주 거주. 부친은 1900년대 초반, 자신의 유년 속에 비친 제주도를 수십 장의 그림으로 남기고 있음.
마쓰다 요시로 (梶田淑郎)	가나자와현 가마쿠라시 (神奈川県鎌倉市)	1930년대 2차례 제주도를 방문하여 조사한 지리학자 梶田一二的 차남.
야마모토 슌스케 (山本俊介)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학예관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역에서 나온 엽서 수집 및 소장자로 유명. 그 중 소량의 제주도 엽서.
요시이 히데오 (吉井秀夫)	교토대학(京都大学) 교수.	이마니시 류(今西 龍) 자료에 있는 제주성내 및 외도천 풍경 엽서
이동민(李東旻)	동경도 스기나미구 (東京都杉並区)	재일제주인 1세 이철(李哲)의 차남. 재동경제주인 관련 문서 및 사진 등 다수 소장.

이타바시구립 향토자료관 (板橋区立郷土資料館)	동경도 이타바시구 (東京板橋区)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914년 제주 체류 당시 자필엽서.
쓰르가와 하루카 (弦川 永)	교토시 사쿄구 (京都市左京区)	일제강점기 제주성내 흑산호 가공점(산 지 건입리 134번지) 넷째 아들.

② 일제강점기 제주도 근무, 시찰, 조사, 탐방 등의 목적으로 제주 땅을 밟고, 사진 및 기록물을 남긴 주요 일본인(행정관료, 연구자)

###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

영문학자. 1906년 동경제국대학 언어학과 입학. 1906년 「濟州島紀行」(한라산 등반기)가 있음. 1905년 통역원으로 곤충 동물학자 앤더슨(Anderson)과 함께 제주에 재방문.

### 아오야나기 고타로(靑柳鋼太郎)

《조선의 보고: 제주도 안내》(1905년) 저자. 1901년 서울에서 반년 머물고, 때마침 제주도 민란(이재수의 난) 소식이 있어 벗과 함께 목선에 탑승하여 제주에 왔었다(1901년). 그가 이곳에 왔을 때는 민란이 평정되어 있었다 한다. 그는 또한 제주에 십수일 머물면서 민정(民情) 및 풍속 등을 유래를 고찰하고 그 정황을 약간 조사·기록해 두었고, 이후 체신청의 말단관리가 되었다는 점과 1905년 봄 공무로 다시 제주를 찾아 지난날의 기록을 보완, 편집하여 책자로 내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제주의 역사, 지리, 교통, 풍토, 농림수산업 관련 안내와 함께 홍종우 제주목사와 제주도 부인의 복장, 제주 역사 유적지 등 제주에 관한 8매의 머릿그림을 수록하고 있다.

### 오노 마사오(大野仁夫)

《남선보굴 제주도》(1912년)의 저자.

###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 인류학자)

근대 일본의 고고학자, 인류학자, 민속학자. 생애 타이완, 만주, 몽골, 시베리아 등으로 필드 조사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1911년~1915년까지 제주도를 비롯하여 한반도 조사에 들어갔다. 한일병합 후, 조선총독부는 교과서 편수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도리이에게는 ‘체질인류학·민속학·고고학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조사’를 의뢰하였다. 도리이는, 인류학 뿐 아니라 석기·고분의 조사에도 적극적이었다. 제주에는 1914년에 머물렀다.

###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1870~1943, 제주도 초대도사)

1908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지방 경찰 부장직을 역임하고 충청도, 강원도에서 근무한 후 1915년에 제주 초대도사(島司) 겸 제주 경찰서장으로 4년 간 제주에 머물렀

다. 《조선풍속집》(1914년)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우마>, <제주의 전복>, <제주도의 질병>, <제주도의 사굴과 전설> 등의 글을 남김.

####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1899~2002, 고건축학자)**

제주에는 1925년 4월2일~11일까지 10일 정도 머물렀고, 귀경 후 《조선과 건축》(일본어)이라는 잡지에 <제주도의 건축>이라는 타이틀로 4회 연재(1925년6월호~9월호)를 했다. 당시 제주도 민가의 도면과 제주성내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 **가지야마 아사지로(梶山淺次郎, 土木技師. 하천공사 전문가)**

《조선》160호(1928년9월호)에 1928년5월 제주축항공사 시찰 겸 내도한 기행문 「濟州島紀行」 남김. 산지천 부근 설명. 홍예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지적 등등. 또, 당시 제주도사 마에다 겐지 등과 한라산 횡단을 횡단하여 서귀포 유람, 다음날 자동차로 시내로 돌아오는 도중 옹포 통조림공장 들린 이야기 등.

#### **시가 기요시 (志賀 潔, 1871~1957, 의학자)**

조선총독부 의원장. 경성제국대학 총장(1929~1930) 등 역임. 1928년5월 앞에서 언급한 토목기사 가지야마 아사지로(梶山淺次郎) 일행과 첫 내도. 제주도의 위생상태 시찰 위해.

####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조선총독부 촉탁)**

1923년 7월부터 1935년 말까지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그 후에는 만철경제조사국, 척식장려관, 만주국의 국무원 총무청 기획처에서 1941년까지 근무하면서 일본 식민지 정책과 관련한 조사업무

조선의 생활상태조사(취락, 의식주, 관혼상제, 사회조직, 문화, 경제기구 등)를 수행했고, 제주도 역시 그 조사 대상이 되었다. 1929년12월에 간행된 《生活狀態調査》(2) 제주도편 총설에서 젠쇼 에이스케는 수록된 내용과 사진들이 대체로 1927년~1929년에 걸쳐 총독부 직원의 출장조사 및 제주도청의 보고에 의한 것

####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1891~1968, 민속학자, 조선총독부 촉탁)**

1941년까지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근무하면서 1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조선 체재 당시 주요 저작으로 《조선의 습속》(1929년), 《조선의 귀신》(1929년), 《선의 귀신》(1929년), 《조선의 풍수》(1931년), 《조선의 巫覡》(1932년), 《部落祭》(1937년)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촉탁(囑託)으로 활약했던 무라야마는 1931년 10월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의 점속(占俗), 굿, 본풀이 채록(서귀포) 및 해녀 등 제주의 다양한 풍속에 대해 조사·촬영

####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1915~1970, 인류학자)**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부친을 따라 일찍이 조선 경성으로 건너와 학업을 이어갔다. 경성부공립동대문심상소학교(6년차 전입)를 거쳐, 경성공립중학교, 경성제국대학 예과, 경성제국대학 문학부(당시는 문학과, 나중에 철학과로 전과)를 졸업. 그는 생애 문화인류학과 민속학 관련 저서와 갖가지 현장 조사(필드 워크) 기록을 남겼다.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35년 여름**이었다. 수 주간 제주도 민들의 생활과 자연을 조사하던 차에, 지금까지 겨울에 눈 덮인 한라산을 오른 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동년 12월에 한라산 적설기 등반차 경성제대 산악부팀 선발대장으로 제주에 다시 오고, 1936년 1월 1일 한라산 정상 등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965년 30년 만에 제주를 재방문했고, 그것을 토대로 《濟州島》(1966년, 동경대학출판부)라는 방대한 연구서를 사진 자료와 함께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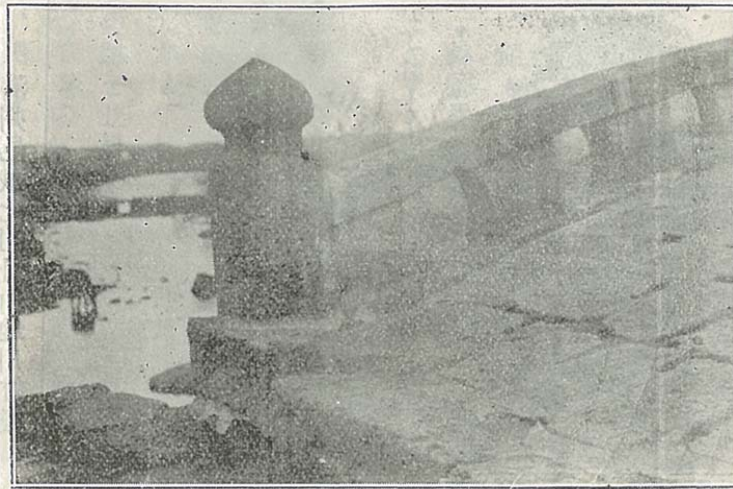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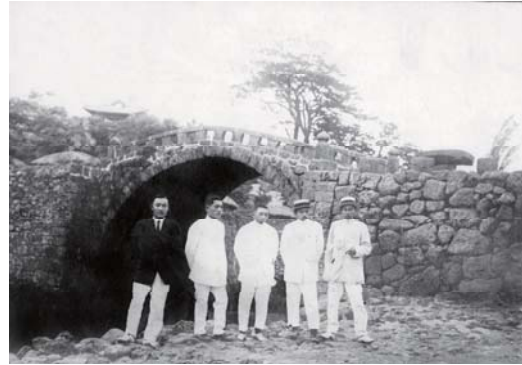
#### **마스다 이치지(梶田一二, 1895~1974, 지리학자)**

마스다 이치지는 일본 도쿠시마(徳島)출신으로 지리학자이며, 릿쇼(立正)대학 문학부 교수를 역임. 1930년대에 제주를 수차례 오가며 조사하여 제주의 인구, 지리, 취락, 해녀, 용천수 등을 상세히 연구하며, 다수의 논문을 남긴 인물이다. 제주 관련 논문으로는 당시 사진 자료와 더불어 <제주도 해녀의 지지학적 연구>(1934년), <제주도에 있어서 축산의 지지학적 연구>(1934년), <제주도 취락의 지지학적 연구>(1939년) 등이 있다. 나중에 이들 논문은 《梶田一二 지리학 논문집》(1976년, 東京: 弘詢社)에 재수록

#### **다카하시 노보루(高橋 昇, 1892~1946, 조선총독부/ 농업정책)**

1919년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수원지장 근무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말까지 조선에서 근무했다. 그는 당시 한반도 전 지역에 걸친 작부방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37년에서 1943년까지 한반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선의 작부방식에 대해 조사 및 촬영을 하였다. **제주에는 1939년 5월에** 와서 제주시가 및 한림부근 옹포리, 명월리, 그리고 서귀포 일대를 조사·촬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기구 스케치, 400여장의 농촌 풍경사진 및 방대한 필드 노트가 있다.

이들 중, 발표자는 제주도 ‘공간표상’의 일례로 1925년 4월에 내도해서 10일 정도 머문 일본 최고의 고건축학자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의 제주성내 북수구(홍예문, 홍교, 메가네 바시 등으로 불림)를 둘러싼 그의 기록(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濟州邑城北門傍山地川虹門



(欄高式本日)

**사진설명(상단 좌측부터~~)**

- ① 구한말 제주읍성 북수구와 공신정 전경
- ② 1920년대 초반(추정) 제주성 북수구와 공신정 전경
- ③ 조선건축회 발행 《朝鮮と建築》에 게재된 후지시마 가이지로 <濟州島の建築>(2) (1925년7월).
- ④ 1927년 10월(제149호) 조선총독부 정기간행물 《朝鮮》 표지사진으로 나온 ‘제주도 안경교’

북수구(홍예문)는 조선시대 성벽의 일부를 이뤘던 수문의 기능(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고 감시)을 하는 문으로, 현재 산지천 북성교 지점(광제교에서 북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 수문은 아치형 즉 무지개 모양을 하고 있어 기록에는 홍문(虹門) 또는 홍예문이라고도 전한다. 때문에 건입동 사람들은 이를 두고 ‘횡이문’이라 했었는데, ‘횡이’는 ‘홍예(무지개)’를 제주어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 이외에도 북수구는 근대 일본의 영향인지 점점 안경다리, 홍예다리, 홍문교, 원교, 외알 안경교(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가타 메가네 바시’)등의 다리 이미지로 불리게 되었다.

사진①은 구한말 제주읍성 북수구와 공신정 전경이다. 구한말 제주도에 체류했던 (1897.12.~1901.7.) 유배인 김윤식은 제주의 홍예문 경치를 다음과 같이 읊을 정도였다.



“석성 주위와 마주치는 데를 굽어보니 수구에 홍예문이 지어져, 이 위를 통해 왕래 한다. 수문의 바깥은 백규(百頃)의 뚝으로 둘러싸인 연못에 봄물(春水)은 넘실거리는데, 오리 떼가 열을 짓고 있다. 제방 위에는 파란 버드나무가 빙 둘러 있고, 언덕 위에는 인가가 있어 복숭아꽃이 곳곳마다 활짝 피어 있다. 그림과 같은 경치이다” (《속음청사》 1898.5.15./음4.25.).

제주의 바로 이 홍예문 전경은 일제강점기 <조선명소> 엽서 시리즈에도 들어가 시중에 유포될 정도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홍예문을 중심으로 한 ‘공간표상’이 일본인 후지시마 가이지로와 제주인들 기억 사이에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수구(홍예문)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성윤문 목사 재임시절에 창건된 이래(1600년), 1652년 8월에 큰 비바람으로 헐리자 당시 재임 목사 이원진이 “성채(城砦)가 있는 곳이니, 수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구한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돌로 쌓는 것만 못하다” 하여 이듬해 비로소 무지개형 돌문(石門)이 제주 땅에 탄생하였다. 이후 수차례 태풍과 홍수 등으로 파손되며 수구는 보수, 중건, 재건의 역사를 걸어왔고, 20세기 초반에는 사진①의 외양을 갖추다가 어느 사이 사진②와 사진③(세부)으로 개축되고, 마침내 1927년 8월 태풍으로 유실되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20세기 들어 불과 20년 남짓 기간 사이에 홍예문 외양이 사진①에서 사진②로 바뀐다는 것이다. 즉, 구한 말기까지만 해도 홍예문 위엔 난간이 없었는데, 어느새 사진②③에 보이는 동자석과 용두석으로 구성된 난간형 ‘안경다리’로 변모한 것이다. 사진②는 그것을 기념함인지 당시 제주지방법원 박중훈 판사(검은 상의 착용)와 일본인들이 일본식 다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홍예문을 둘러싼 후지시마 가이지로의 글이다. 그는 조사차 1925년 4월에 내도하여 10일 정도 있다가 귀국한 직후, 건축 월간지 《조선과 건축》에 <제주도의 건축>이란 글을 4회 연재한다. 그 중 7월호에 후지시마는 제주 홍예문을 홍교(虹橋)라 칭하면서 다리 세부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후지시마 글의 요점은 그 난간을 한 홍교는 나가사키 가교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그것은 ‘일본과의 원래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라 적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사진①에서 보았듯이 제주의 홍예문엔 원래 난간이 없었다. 오히려 제주 홍예문에 일본식 난간이 세워지고, ‘문’이 ‘다리’의 개념으로 전이한 것은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후였다. 그런데 일본을 대표하는 고건축학자마저 그것을 처음부터 갖췄던 외양인양 하고, 이를 일본의 영향으로 본 것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그가 내도한 시기를 감안하면 홍예문의 조선 양식은 이미 사라지고 없던 때였다. 그가 제주에서 본 것은 사진②③처럼 ‘일본식’ 난간을 갖춘 다리로, 실재 그와 흡사한 양식이 나가사키를 포함한 일본 규슈 지역에 전해진다.

한편, 이 ‘일본식’ 홍교를 담은 또 하나의 기록 사진④가 우리의 눈길을 끈다. 1927년 8월에 유실되었다는 홍교가 같은 해 10월 ‘제주도 안경교’ 라는 타이틀로 총독부 기관지 《朝鮮》의 표지사진으로 등장한다. 아치 저편엔 사진①②③에 존재하지 않던 일본식 건물들도 보인다. 이로 보아 1920년대에 들어 홍교를 비롯한 주변 역시 점점 일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개월 전 유실된 제주의 다리가 당시 총독부 기관지 표지사진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 2년 전 후지시마가 말한 ‘일본식 가교의 영향’을 받은 홍교가 최근에 무너진 것에 대한 추념이었을까? 그래서 제목도 더욱 일본적인 ‘안경교(메가네 바시)’라 붙였던 것일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주 홍교가 유실된 지 6년 후 즉 1933년엔, 그것이 ‘제주 북문지 홍교’라는 타이틀로 《朝鮮古蹟圖譜》 제13권에 소개된다는 점이다. 이 역시 일본은 1933년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기록하면서, 제주의 명승고적(古蹟)의 양식에 ‘묻었다’는 일본 유래설을 재차 강조하고자 했던 것일까! 발표자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제주도 ‘공간표상’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홍예문·홍교에 얽힌 기억의 불투명성에 따른 해석의 불일치가 제주인들 사이에 나아가 당시 제주인들과 일본인 연구자들 사이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서부터였다.

따라서 이러한 ‘그 때, 그 곳’의 공간표상은 기록자 또는 기억자에 따라, 그 의도, 시각, 기법, 해석 등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기록 사례를 도내외적으로 발굴하고, 하나의 ‘공간표상’을 교차하는 시점을 연결하는 지(知)의 대화적 생산과 심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현, 일본 내 제주연구 동향(단체별/지역별/ 테마별)

마지막으로 ‘제주와 일본 학술문화 교류를 위한 전망’이란 큰 틀에서, 현재 일본 내 제주연구 관련 학술문화·시민단체들의 일부 동향을 소개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 일본 내 제주연구 관련 학술문화·시민단체<sup>3)</sup>

분 류	학술문화·시민단체	홈페이지 또는 주소
대 학	東北大学 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동아시아와 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활동.	<a href="http://www.cneas.tohoku.ac.jp/">http://www.cneas.tohoku.ac.jp/</a>

3) 본 데이터 작성을 위해 다음의 재일본 연구자들의 협력을 얻었다. 野村伸一(慶應義塾大学), 伊地知紀子(大阪市立大学), 玄善允(大阪経済法科大学), 藤井幸之助(大阪大学 外国語学部), 金良淑(東京大学), 高誠晩(京都大学) 등. 따라서 이 표는 이들 연구자들로 소개받은 단체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제주연구와 관련성 있는 단체를 부각하는 의미에서 발표자가 수정 또는 가필하였다.

東北, 東京, 大阪, 京都, 奈良, 九州, 沖繩...	東京大学 韓国朝鮮文化研究室	http://www.l.u-tokyo.ac.jp/~korea/	
	東京大学 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	http://ut-ccks.net/	
	早稲田大学 韓国学研究所 (2013年10月 開設) *중래의 일국가 단위를 중시하는 지역연구(area studies) 를 넘어서, 보다 넓게 동아시아의 지역형성이라는 시점에 기반하여 광역연구 (region studies) 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꾀하고자 함.	http://www.wiks.jp/	
	東京学芸大学 韓国研究所(李修京 研究室) *여성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http://www.u-gakugei.ac.jp/~skdragon/	
	大阪大学 外国語学部 朝鮮語学科		
	大阪経済法科大学 アジア研究所	https://www.keiho-u.ac.jp/research/asia/	
	大阪市立大学 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	http://www.rchr.osaka-cu.ac.jp/index.html	
	<b>교토 코리아학 컨소시엄 (KCKS)</b>	동지사대학 코리아학 연구센터	http://kyoto-korea.net/
		입명관대학 코리아학 연구센터	
		교토대학 조선·한국학 교육·연구네트워크	
		불교대학 한국·조선학 연구자네트워크	
	京都大学 東アジア人文情報学研究センター (京大人文学研究所附属)	http://www.kita.zinbun.kyoto-u.ac.jp/	
	天理大学 国際学部 外国語学科 韓国・朝鮮語専攻 研究室だより 1925년, 일본에서 유일한 한국·조선학전문교육기관으로 텐리외국어학교 조선학부가 탄생. 이후 80여년을 거치며 일본의 한국·조선어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텐리대학 고문서도서관에도 한국·조선문헌 다수 소장.	http://www.tenri-u.ac.jp/ins/kor/index.html	
九州大学 韓国研究センター	http://rcks.isc.kyushu-u.ac.jp/		
沖繩国際大学 南島文化研究所	http://irc.okiu.ac.jp/detail.jsp?id=2105&menuid=		

		1142&funcid=1
학 회 (학술연구)	韓国・朝鮮文化研究会 기관지 『韓国朝鮮の文化と社会』	<a href="http://askcs.jp/">http://askcs.jp/</a>
	現代韓国朝鮮学会 기관지 『現代韓国朝鮮研究』	<a href="http://www.ackj.org/">http://www.ackj.org/</a>
	朝鮮史研究会(관동지부/관서지부)	<a href="http://www.chosenshi.gr.jp/">http://www.chosenshi.gr.jp/</a>
	朝鮮現代史研究 (水野直樹 교수 홈페이지)	<a href="http://www.zinbun.kyoto-u.ac.jp/~mizna/">http://www.zinbun.kyoto-u.ac.jp/~mizna/</a>
	藤永壯氏 교수 홈페이지	<a href="http://www.dce.osaka-sandai.ac.jp/~funtak/">http://www.dce.osaka-sandai.ac.jp/~funtak/</a>
	日本耽羅学会 기관지 『耽羅』 가 있었음. *鳥越憲三郎가 1987年 설립.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内)	현재 활동 여부 미확인.
	耽羅研究会(재 동경 재일1세 중심) 기관지 『濟州島』	<a href="http://www.an-nyong.com/tamra/jejudo.html">http://www.an-nyong.com/tamra/jejudo.html</a>
	濟州島研究会 기관지 『濟州島研究』 (케이오대학, 가나가와 대학 연구자 중심)	<a href="http://www.jejuislands.com/index.html">http://www.jejuislands.com/index.html</a>
	青丘文庫研究会 月報 『青丘文庫月報』 1972년, 韓哲曦 황석희 창립. 神戸市立図書館(내) 특별컬렉션青丘文庫	<a href="http://www.ksyc.jp/sb/">http://www.ksyc.jp/sb/</a>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会 (관서지부 대표 히다) *朝鮮民族運動史研究会	
龍王宮プロジェクト	<a href="http://www.ur-plaza.osaka-cu.ac.jp/archives/GC/OE_Report18.pdf">http://www.ur-plaza.osaka-cu.ac.jp/archives/GC/OE_Report18.pdf</a>	
시민단체  在日, 청년  교육, 인권  강제연행  여성, 4·3  등등	むくげの会(神戸) 40년 넘은 민초들의 교류(草の根交流)	
	コリアン・マイノリティ研究会 (구, 在日朝鮮人研究会)	<a href="http://white.ap.teacup.com/korminor/">http://white.ap.teacup.com/korminor/</a>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링크 참조)	<a href="http://ksyc.jp/link/">http://ksyc.jp/link/</a>
	在日本濟州 4·3 事件犠牲者遺族会 濟州 4·3 事件を考える会・大阪	
	濟州 4·3 事件を考える会・東京	<a href="http://shinkansha.exblog.jp/22369213/">http://shinkansha.exblog.jp/22369213/</a>
	戦後補償関係 단체 또는 개인 홈페이지 소개	<a href="http://www.geocities.jp/eisintainagoya/rink.html">http://www.geocities.jp/eisintainagoya/rink.html</a>
	強制動員真相究明 네트워크	<a href="http://www.ksyc.jp/sinso-u-net/">http://www.ksyc.jp/sinso-u-net/</a>
	戦後責任を問う・関釜裁判を支援する会	
	早よつくろう! 「慰安婦」問題解決法・ネットふくおか	

	第2次不二越強制連行・強制労働訴訟を支援する北陸連絡会	
	VAWW RESEARCH ACTION CENTER (VAWW RAC)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行動する会・北九州	
	強制連行・企業責任追及 裁判全国ネットワーク	
	東京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日韓市民でつくる 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	<a href="http://www.f8.wx301.smilestart.ne.jp/">http://www.f8.wx301.smilestart.ne.jp/</a>
	在韓軍人軍属 (G U N G U N) 裁判の要求実現を支援する会	
	強制連行・強制労働犠牲者を考える北海道フォーラム	
	「慰安婦」問題解決オール連帯ネットワーク	
	코리아 NGO 센터	
	強制連行・企業責任追及 全国裁判ネットワーク	
	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	
	ノー! ハプサ、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を目指す北海道の会	
	在日の慰安婦裁判を支える会	
	ピースサイクル全国ネットワーク	
	日韓・日朝の明日を考える 釧路かささぎの会	
	在日・朝鮮人・教育運動・관련 1965년 大阪市外国人教育研究協議会 発足 1984년 民族教育促進協議会(民促協) 発足 (민족학급, 민족강사의 신분보장 등, 민족교육의 제도화를 요구한 운동 등)	
<b>자료관</b>	国立公文書館 디지털 아카이브	<a href="http://www.digital.archives.go.jp/">http://www.digital.archives.go.jp/</a>
	동경 이타바시구립 향토자료관 (東京 板橋区立 郷土資料館)	東京都板橋区赤塚 5-35-25 일제강점기 도쿄대 인류학과 교수 이시다 슈조(石田収藏)의 당시 엽서 자료 소장.
	在日韓人歴史資料館	東京都港区南麻布 1-7-32 韓国中央会館別
	一般財団法人: <b>アジアセンター21</b> 아시아 図書館・아시아 센터를 만드는 모임(1981년 창설)	大阪市東淀川区淡路 5-2-17
	大阪人権博物館	<a href="http://www.arakawas.s">http://www.arakawas.s</a>

	(별칭: 리버티 오사카)	akura.ne.jp/backn005/ojinken/okinken.html
	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www.d3.dion.ne.jp/~okakinen/
	아시아여성자료센터	<a href="http://www.ajwrc.org/jp/">http://www.ajwrc.org/jp/</a>
	액티브·뮤지엄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	
	高麗美術館 Koryomuseum of Art	<a href="http://www.koryomuseum.or.jp/">http://www.koryomuseum.or.jp/</a> 京都市北区紫竹上岸町15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 규슈 사가현)	佐賀県唐津市鎮西町名護屋1931-3 *일제강점기 조선문화재(제주관덕정 포함) 수리담당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자료 및 다수의 한반도 유물 소장.

이상 소개한 일본 내 제주연구 관련 학술문화·시민단체는 물론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이 데이터 베이스는 관련 연구자들 협력하여 공동으로 갱신해 가면서 현행 이슈와 연구방법론 등을 교류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발표자는 21세기 '제주학'=트라이버전스(트리플+컨버전스)=하드웨어(인식공간: 제도·자료)+소프트웨어(언어공간:정책·보급)+네트워크(표현공간: on/off 교류)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제주와 일본 학술문화 교류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를 희망해 본다.